

[ 건강·의료 ]

당뇨병의 또 다른 합병 '당뇨망막병증'

# 아차하면 실명... 정기 안과검진 중요

## 10년 된 당뇨병 환자 10명중 7명서 발병

당뇨병환자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많은 환자가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는다.

당뇨가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시력 등 눈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의외로 적다.

이 때문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시력을 잃는 경우도 간혹 있다.

◇당뇨망막병증=당뇨망막병증은 비증식당뇨망막병증으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 신생혈관이 발생하면 증식당뇨망막병증으로 진행하게 된다.

신생혈관이 발생한 증식당뇨망막병증이 되면 신생혈관으로 인해 눈속출혈이 생기거나 또는 신생혈관막이 수축하며 망막을 잡아당겨 생기는 견인성 망막박리가 생겨 시력이 저하되게 된다.

눈속 출혈이 흡수되지 않거나 견인성망막박리가 심해지면 수술을 해야 하며, 심한 경우 수술 후에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치료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당뇨망막병증을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아야하는 주요 이유중 하나이다.

이와 함께 당뇨로 인해 망막의 모세혈관이 손상되면 혈액성분이 새어나와 삼출물이 고이게 되고 시력에 중요한 망막의 중심부(황반)가 붓게 되는데 이를 황반부종이라고 하며 시력저하를 일으키게 된다. 한 조사에 의하면 당뇨망막병증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30세 이전에서는 10명중 약 2명, 30세 이후에서는 10명 중 약 4명이 진단 당시 당뇨황반부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당뇨망막병증 치료=이렇게 심각한 시력저하를 일으키며 치료가 만만치 않은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기간과 관계가 깊다.

당뇨병이 시작된 지 약 10년 정도면 환자의 68%, 15년이 지나면 약 80%에서 당뇨망막병증이 발견되고 이중 약 30%에서 심각한 눈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 때문에 미국안과학회는 31세 이상의 성인이 당뇨병에 걸리면 진단 즉시, 30세 이하의 연령에 진단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안과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진료 후 당뇨망막병증 진행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함께 정기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며 당뇨망막병증이 없어도 최소 1년에 1회는 안과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뇨망막병증의 검사는 동공이 망막을 가리고 있으므로 약물로 눈안의 동공을 키워서 시행을 하는데 동공이 커지게 되면 하루 정도 시력에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검사 당일에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하며, 운전도 피하는 것이 좋다.

◇생활 속 주의 사항=당뇨망막병증은 망막질환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전신상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혈당조절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고 그 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성 신증 등도 당뇨망막병증을 악화시키는 인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내과적인 치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당뇨병이 있는 여성이 임신할 경우 당뇨망막병증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임신 전 또는 임신 첫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고 그후 3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뇨망막병증 환자들이 병원을 찾을 경우 상당수가 이미 당뇨망막병증이 심하게 진행돼 시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꽤 있다. 따라서 당뇨망막병증은 시력이 좋을 때부터 적절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 물론 모든 당뇨망막병증이 심각한 것은 아니다.

<도움말=광주안과 송승 원장>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송승 광주안과 원장이 당뇨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해 '눈속출혈'이 발생한 환자를 시술하고 있다.

# 식품감시 강화·식중독 지수 예보 250개 질병정보 모니터망 가동

## 광주시 불철 시민건강 관리 감시체계 구축

광주시와 5개 구는 불철 환자와 환절기에 대비한 시민건강 관리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5월 말까지 2개월 간을 안과질환을 비롯해 황사로 인한 각종 질환과 인플루엔자(독감), 식중독 등 환절기 유행성 질환 발생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250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매일 가동한다.

또 주 1회 이상 안과질환 발생 상황감시 및 19개 병·의원에 대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를 실시하고, 식품위생업소·집단급식소 종사자 1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분균자 색출 검사 등 유관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4월 말까지 취약지 476곳에 대해 각 보건소 지원방역단을 동원해 월 2회 분무소독 위주로 조기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특히 대형아파트 등 의무소독시설은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별 소독 횟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확인·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 안전관리와 식품위생업소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뷔페·대형음식점, 음식점과 행사지 주변 등 1천581개 업소를 대상으로 명예식중독감시망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해 간이 키트검사로 식중독균을 신속히 확인하고

하고,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 정기 예방접종 홍보, 환자 발생에 대비한 언론매체 활용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행사 발생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질환, 증상별) 행동 요령

질환(지역, 천식 등)	주증상	예방대책
호흡기 질환 (기관지염, 천식 등)	• 호흡곤란 • 목의 통증 • 기관지, 기도점막의 염증 • 기침 등	• 천식환자는 황사가 심할 때는 가급적 외출을 삼간다 • 청문 등을 받아 외부공기의 유입저감 • 공기정화기, 가습기로 실내공기를 정화시키고 습도를 조절한다 • 물을 많이 마신다
인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 눈이 가렵고 눈물이 남 • 눈이 빨갛게 충혈 됨 • 눈에 흰자 붙어있는 것 같은 이물감과 통증 • 눈을 비비면 끈끈한 분비물이 나온다	•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보호안경을 끼고 콘택트렌즈의 착용을 삼간다 • 귀가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눈을 씻어낸다 • 소금물은 눈을 자극하므로 피해야 한다 • 결막염 초기증세가 의심되면 깨끗한 천으로 눈을 대고 깜박거리거나 얼음 찜질을 해주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비인후과질환 (알레르기 질환)	• 재채기가 계속됨 • 코가 막히고 맑은 콧물이 남	•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 귀가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콧물을 씻어낸다
피부질환	• 피부의 가려움증 • 두드러기 등	• 외출 시에는 황사에 가깝지 않도록 되도록 긴소매 옷을 입는다 • 피부에 로션 등을 발라 휴먼지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한다 • 귀가 후에는 반드시 손과 발 등 피부를 깨끗이 씻는다

## 조선대 내성세포연구센터 기술이전 산학 연구 협력식

지난 2003년 기초과학연구센터(MRC)에 선정돼 암 및 미생물에서 내성의 분자기전을 규명하고 있는 조선대 내성세포연구센터(센터장 최철희 교수·의과대학 약리학 교실)가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산업화하기 시작했다.  
내성세포연구센터는 6월 오후 3시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특허 '멀티플렉스 PCR(Multiplex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이용한 항암제 내성유전자의 검출방법 및 이를 이용한 진단 검출키트'를 (주)바이오니아 진단연구소(소장 : 박해준)에게 기술이전합작 동사에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기법(real-time PCR)을 이용한 항암제 내성진단 키트 제품개발을 위한 산학 연구 협력식을 체결한다.  
이번 협력에 따라 조선대 내성세포연구센터는 1천만원의 기술이전료와 함께 매출액 3%를 로열티로 받게 된다.

## 권역별 심뇌혈관질환 센터 선정 전남대병원 국비 52억원 확보

전남대병원이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 발생지역 어디서나 적정진료(3시간) 내에 전문진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까지 5년간 국비 57억원 등 총 8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전남대병원은 앞으로 응급치료와 조기재활 전문치료 호남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돼 사망, 장애예방, 건강 형평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대병원 심뇌혈관 전문질환센터는 현재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정보센터가 있는 제 8병동에 위치하게 되며, 추가 필요공간은 제 1병동과 제 7병동을 사용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남대학교병원 학마을봉사회(회장 이상음 교수)는 지난 2008년 한 해동안 총 91명의 환자에게 1억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매달 '사랑의 식당'에 월 50만원을 기부했다.  
전남대병원 8동 5층에서 최근 열린 제 7차 학마을봉사회 정기총회 결과에 따르면, 학마을봉사회는 지난 해 병원 및 화순병원 환자 39명, 남구정 및 동구정 의원환자 14명, 긴급(응급)지원

전남대병원 학마을봉사회  
지난해 환자 91명에  
의료비 1억여원 지원  
환자 12명 등 총 91명에게 1억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밖에 설과 추석 명절에는 광주나자릿집, 무

등육아원, 성빈여사, 동일동산요양원, 광주희망원, 예수마리아요셉 부활의 집, 광주 일찍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가전제품, 생필품 등 400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과, 약사, 간호사 등 15명의 의료진이 광주시 남구 봉선2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형제사를 찾아 영유아를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소아과와 질환 22명, 소아질환 52명 등 총 74명을 진료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38년전들 대한민국대표 종합여행거점

# 롯데관광 LOTTE TOUR

1577-3000

광주지사: 062-226-2601

광주서구점 062-383-1133    광주첨단점 062-974-3050  
순천점 061-755-7114    목포점 061-244-5882  
익산점 063-843-3800    전주꽃대점 063-289-2855  
광주롯데점 062-227-5310    전주시창점 063-282-3210

5월 황/금/연/휴 단독특별전세기 [선착순리뷰]

대만 화련아류 + 온천 4일 5/1 [1인당]  
799,000 → 949,000

대만 화련아류 + 온천 5일 5/1 [1인당]  
1,790,000 → 1,699,000 (선착순)  
899,000 (선착순)

대만 화련아류 + 온천 3일 1,590,000

대만 화련아류 + 온천 4일 1,590,000

대만 화련아류 + 온천 5일 1,199,000

대만 화련아류 + 온천 5일 1,099,000

www.LOTTETOUR.com

## 창립38주년 기념 & 5월 가정의 달 Event

무안 출발 롯데관광 38주년 & 광주지사 OPEN 2주년 기념 고객감사 특별전

38주년 특별대가 이벤트  
EVENT 1 38주년 특별대가 이벤트  
EVENT 2 추부모님께 사랑의 편지 전달하기  
EVENT 3 가족의 사랑 확인하기  
EVENT 4 자녀 여행가고 영어 공부하고~

북경 만리장성 4일 ₩399,000  
북경 만리장성 4일 ₩399,000  
북경 완전일주 4일 ₩549,000  
북경 완전일주 5일 ₩579,000

동남아 인기메스트 4인진출발  
일본 4인진출발  
유럽 4인진출발  
일본 4인진출발  
제주도 패키지 2박3일